

父母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性役割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s o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x-role Traits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李 淑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Instructor; Sook Lee

<목 차>

I. 서 론
II. 문헌 고찰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 1) To find out if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have any relationship with sex of children and education of the parents.
- 2) To investigate how and what extent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ffect the sex-role traits of children.

In order to pursue the above purposes, the Bem Sex Role Inventory (BSRI) and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27 6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wang Ju.

For dataanalysis, such techniques as multiple regression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Both boys and girls perceived more positive attitudes by mothers than by fathers
- 2) Some effects of sex differences and education of parents were found in the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sex-role traits of children.
- 3)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sex-role traits.

I. 서 론

父母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Symonds(1939)가 양육 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시켜서 연구한 이래, 양육 태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세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행동을 자율-통제와 애정-적대감의 두 차원적 model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Maccoby와 Jacklin(1974)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결과, 애정·통제·권위의 세 차원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Baumrind(1973)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인 세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에서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성격 특성이나 인지적 능력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모-자녀 관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점차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S. Walters & L.H. Walters, 1980).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性役割 고정관념은 자아 개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전한 성격 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 행해진 성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 특성을 兩性性, 男性性, 女性性 점수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Bem, 1974; Heilbrun, 1978; Spence et al., 1975). 이러한 점수들에 근거해서 제시된 양성성·남성성·여성성·미분화의 유형들 중 특히 양성성 성역할이 사회적 바람직성, 적응 능력, 자아 존중감 등과의 높은 긍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Bem, 1977; Bem & Lenny, 1976; O'Connor et al., 1978; 이숙, 1983; 정옥분,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父母의 양육 태도와 성역할 특성과의 관계 및 자녀의 性別, 父母의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 하였다.

II. 문헌 고찰

1) 자녀의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 등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부모의 애정에 대한 지각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년보다 더 많은 애정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Siegelman, 1965; Hoffman and Saltzstein, 1967), Symonds (1939)는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이 사회적

으로 더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협동적·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 거부당했다고 느낀 집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활동이 어수선하고 주의 획득적 행동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Rohner(1970)는 수용-거부 이론에 근거해서 거부적인 부모는 문화·언어·신체 유형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녀의 적대감 공격성·의존성 및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 등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Hoffman(1960)은 어머니의 심한 권력단언적 처벌은 자녀의 적개심, 권력 요구, 자율성 추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아동은 이를 친구들이나 허용적인 대상에게 치환시킨다고 하였다.

조희진(1982)은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부와 모의 거부 및 성취 압력을 더 많이 지각하였고, 男·女 모두 父보다 母가 과보호적·거부적·성취 압력적이라고 지각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M.R. Medinnus (1969)는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를 복종적으로 만들며, 안정과 독립심의 결핍을 가져오므로 동료들 사이에서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고 했다.

Paul C. Gerden(1969)은 비정상 집단의 아동은 부모를 거부적이라고, 범피아 집단은 과잉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하였다.

Donald R. peterson(1967)은 비정상 집단의 아동의 성격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지만, 아버지의 관심의 결여와 독재적 태도와는 상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성격 발달에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조복희(1986)는 4~6세 아동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인지 능력에 부정 상관이 있었으며, 이것은 동성의 자녀인 남아에 있어서 더 현저한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의 인지적 가정 환경도 인지 능력에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hner와 Pattengill(1985)은 한국의 1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년보다 소년보다 아버지를 덜 권위적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했다. 흥

상욱(1985)은 한국과 일본 국민학교 4~6학년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의 자녀가 지각한 父母의 태도는 지나친 기대·익애·맹종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의 태도가 그다지 지배적·거부적이지 않고, 아동 자신을 보호해 주고 아동에게 어느 정도 부중해 준다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이 심리·사회적 특성이 더 발달해 있다고 보고했다. 오성실·이종승(1982)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父母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는 애정적이고 아버지는 성취 지향적·합리적·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에 대한 중학교 남·녀 학생의 지각을 연구한 심영현(1981)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더 권위적이라고 지각했으며, 부모의 수입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보고했다고 제시하였다. Hoffman(1967)은 중류층 소년은 소년에 비해 父母를 더 애정적이고 덜 권력 단언적이라고 지각했으며, 하류층 소년은 소년에 비해 부모가 더 애정적이고 아버지가 더 귀납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수연(1985)에 의하면, 아동은 父를 母보다 더 자율 지향적이고 합리 지향적이라고 지각하며, 父보다 母를 더 애정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라고 지각했다. 또한 성차와 사회 계층차도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또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父母의 양육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김영순(1986)에 의하면, 어머니의 육아 방식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감각 우위의 육아 방식보다 사고 중개적인 육아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중혜(1980)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각각 수용·애정적일수록 남아는 지배성·사려성·사회성이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父母의 양육 태도는 더 애정·수용적이었다. 부모의 민주·자율적 또는 권위·지배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人性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육 수준·종교·자녀수·사회 계층 등과도 상관성이 없었다. Armentrout와 Burger(1972)는 9~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년이 父母의 통제를 더 강하게 지각했다

고 보고했다.

2) 성역할 특성과 父母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성역할 특성과 父母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ears(1965)는 남성성이 父母의 허용성과 비처벌성에 연관된 반면에 여성성은 엄격한 제한과 처벌성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Wright와 Tuska(1966)는 여대생에 관한 연구에서, 女性의인 女性은 정서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어머니와 성공적인 아버지를 갖고, 男性的인 女性은 욕구불만을 주는 비동정적인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아버지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하경(1985)은 농촌 및 도시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도시의 남아는 父母의 양육 태도가 관용적·민주적일 때 男向性이 높고, 권위적일 때 男向性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J.A. Kelly와 L. Worell(1976)은 남·녀 대학생울 대상으로 했는데, 兩性性 性특성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높은 父母의 온정적·인지적 태도를 지각했으며, 미분화 性특성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주로 자녀가 지각한 父母의 태도에서 온정적 차원에 의해 性役割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女性性은 어머니의 온정과 관심에 관계있었고, 兩性性은 특히 높은 애정을 지각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딸에 대한 지적·성취적 격려가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나서 男性性은 父母(특히 父)의 知的·성취적 격려를 지각했고, 兩性性은 인습적이고 모성적인 애정과 호기심이라는 비인습적 격려를 모두 할 수 있는 어머니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 및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문제 1: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남아가 여아보다 더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애정적·합리적·자율적·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가설 4) 여아는 어머니를 애정적으로, 아버지를 성취 지향적·자율적·합리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문제 2: 부모의 교육 수준·양육 태도에 따라 자녀의 성역할 특성에 유의적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5) 양성성 특성은 부모의 애정적·합리적 태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6) 女性性 특성은 父母의 통제적 태도에, 男性性 특성은 자율적 태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7) 父母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兩性性 특성에 긍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전라남도 광주시의 사립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50명의 대상 아동 중에서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정상적 지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설문지 중 한 문항이라도 답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의 아동은 제외시켜서 모

〈표 1〉 아동의 성별 분포도

성 별	분 포		명	%
	아	아		
남	아		71	55
여	아		58	45
계			129(명)	100(%)

〈표 2〉 부모의 교육 수준별 분

교육 수준	분 포	父		母	
		명	%	명	%
국	졸	17	13.2	27	20.9
중	졸	26	20.2	50	38.8
고	졸	43	33.3	41	31.8
대	졸	41	31.8	9	7.0
기	타	2	1.6	2	1.6
계		129(명)	100(%)	129(명)	100(%)

두 129명의 아동이 선택되었다. 대상 아동의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별 분포는 〈표 1〉, 〈표 2〉에 나와 있다. 〈표 2〉에서 보면, 父의 교육 수준은 고졸, 대졸의 순서로, 母의 교육 수준은 중졸·고졸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어서 父가 母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2. 조사 도구 및 절차

성역할 특성에 관한 검사도구로는 Bem(1974)의 BSRI(Bem Sex Role Inventory)를 번안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예비조사는 1986년 4월 16일에 남·녀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남성성 척도는 .77, 여성성 척도는 .7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7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계수(Cronbach α)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 얻어진 흥미있는 결과로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특성을 남성적인 것으로 '다정한 편이다'는 특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가장 높은 일치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친구들을 휘어 잡는 편이다', '유순한 편이다' 등의 특성은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특성 중에서는 '양심적이다'를 특히 여성에게, '행복하다고 느낀다'를 남성에게 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관한 지각에서는 여성에게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이 8 항목, 남·녀에게 비슷하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특성이 10항목인데 비해 남성에게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은 1항목에 불과해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 많은 미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예비조사를 걸쳐 구성한 BSRI 설문지를 다시 국민학교 교학년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5학년 담당교사에게 상의한 결과,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쉽게 수정하였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조사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구분한 오성심·이중승(1982)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별도로 아동의 성별·가족 상황 및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을 묻는 가정 환경 조사서를 첨부하여 모두 3종류의

설문지를 1986년 5월 13일~15일의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本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와 모의 태도를 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중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자녀의 성별 등의 변인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으며, 양육 태도의 4차원에 따른 성역할 특성의 차이를 알기 위해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중에서 stepwise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교육 수준의 관계

〈표 3〉에서 보는 것 같이 아동은 父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율 지향적·애정 지향적·합리 지향적 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 점수가 양육 태도의 4차원에 걸쳐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 父母의 교육 수준 및 양육

〈표 3〉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점수 및 표준편차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父	평균	6.17	7.70	8.87	6.46
	표준편차	1.57	2.01	2.27	1.62
母	평균	6.80	7.96	9.21	6.75
	표준편차	1.41	2.01	2.09	1.92

태도와 성역할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표 4〉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는 여아보다 父를 더 자율 지향적(pearson 상관계수=.167, p<.05), 합리 지향적(pearson 상관계수=.247, p<.01) 태도로 지각했고, 母 또한 더 자율 지향적(.200, p<.01), 합리 지향적(.087, p<.0001)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하리라고 예측했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또한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父를 더 성취 지향적이라고 지각했고(.200, p<.05), 母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母를 더 애정 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216, p<.01).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또한, 여아는 母를 애정 지향적으로, 父를 성취 지향적, 자율 지향적, 합리 지향적으로 지각할 것

〈표 4〉 아동의 성별·父母의 교육 수준 및 양육 태도와 성역할 특성과의 상관관계

	아동의 성별	父의 교육수준	母의 교육수준	父의 애정태도	父의 자율태도	父의 성취태도	父의 합리태도	母의 애정태도	母의 자율태도	母의 성취태도	母의 합리태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아동의 성별	-	.104	.080	-.079	-.167*	.011	-.247**	.041	-.200**	.059	-.087	****	.131	-.196
父의 교육수준		-	.735****	.246**	.045	.200*	-.049	.137	.015	.134	.046	.060	.303****	.217**
母의 교육수준			-	.223**	.084	.112	-.149*	.216**	.017	.117	.023	.057	.262***	.191*
남성성	****	.060	.057	.246**	.125	.118	.100	.147	.224**	.146*	.157*	-	.280****	.830****
여성성	.131	****	.303****	.086	.074	.154*	.066	.118	.064	.241**	-.056	-	-	.682****
양성성	****	.060	.057	.246**	.125	.118	.100	.147	.224**	.146*	.157*	-	.280****	.830****
	-.196**	.217**	.191*	.214**	.127	.168*	.105	.163*	.187*	.237**	.072	-	-	-

*p<.05 **p<.01 ***p<.001 ****p<.0001

〈표 5〉 남성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 분석표

독립 변수	다중상관계수 (R)	결정계수 (R^2)	단순상관계수 (r)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아동의 성별	.413	.171	.164	-8.585	-.428****
父의 애정 지향적 태도	.465	.216	.204	1.363	.214****

* $p < .05$ ** $p < .012$ *** $p < .001$ **** $p < .0001$

〈표 6〉 여성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 분석표

독립 변수	다중상관계수 (R)	결정계수 (R^2)	단순상관계수 (r)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	.237	.056	.049	.975	.237****
父의 교육 수준	.265	.070	.062	2.251	.265****

**** $p < .0001$

〈표 7〉 양성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 분석표

독립 변수	다중상관계수 (R)	결정계수 (R^2)	단순상관계수 (r)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	.233	.054	.047	1.660	.233**
아동의 성별	.321	.103	.089	-6.571	-.221**

** $p < .01$

이라고 예측한 가설 4)도 기각되었다.

2. 아동의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양육 태도 등이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남성성, 양성성 특성을 더 많이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beta = .428, p < .0001$; $\beta = .221, p < .01$) (〈표 5〉, 〈표 7〉 참조).

한편, 父의 교육 수준은 여성성 특성과 매우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성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남성성·여성성·양성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나타나 있다.

父의 애정 지향적 태도가 아동의 남성성 특성의 형성에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beta = .214, p < .0001$),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가 아동의 여성성·양성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eta = .237, p < .0001$; $\beta = .233,$

$p < .01$). 따라서 가설 5)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가설 6)은 부정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本 연구의 대상 아동들의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지각 점수가 서울의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수연(1985)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애정 지향적 태도(부= $11.03 > 6.46$; 모= $10.93 > 6.75$)와 합리 지향적 태도(부= $11.11 > 6.17$; 모= $11.96 > 6.80$)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의 아동들이 애정 지향적 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한 반면, 광주 아동은 성취 지향적 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광주시의 父의 교육 수준이 서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지적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할 비

교·문화적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부모는 母의 양육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양육 태도의 지각과 성역할 특성에서 각각 성차가 나타났다. 남자는 여아보다 父母를 더 자율 지향적, 합리 지향적으로 지각했으며, 남성성 및 양성성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더 많은 금지와 제한을 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父母의 교육 수준은 자녀 양육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父를 더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했으며, 母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母를 더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류층의 경우 상승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父의 성취 지향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母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母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고, 성취 지향적인 태도는 다른 태도에 비해 일상적인 접촉의 빈도가 적어도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 따라 父母의 양육 태도는 자기 다른 방향으로 강화된다고 하겠다.

한편, 아동의 남성성 특성은 父의 애정 지향적 태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자녀간의 애정적 유대가 강할 때 그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더 강화된다는 사회학습 이론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 역시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여성성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양성성·여성성 특성에는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Kelly와 Worell(197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호기심, 지적 관심에의 격려 등의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兩性

性 특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반적으로 부모보다 母의 양육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남자는 여아보다 父·母를 더 자율 지향적, 합리 지향적으로 지각했다.
- 3) 남자는 여아보다 男性性 및 兩性性 특성을 더 많이 나타냈다.
- 4)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父를 더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했고, 母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母를 더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했다.
- 5) 아동의 男性性 특성은 父의 애정 지향적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 6) 父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女性性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 7) 아동의 양성성·여성성 특성은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兩性性 性特性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적응 상태로 유도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받아 들인다면, 父의 애정 지향적 태도와 母의 성취 지향적 태도가 결합된 父母의 양육 태도가 가장 이상적인 양육 태도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父와 母의 양육 태도를 결합시킨 새로운 양육 태도의 유형화에 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父母간 양육 태도의 일치 여부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전경숙, 1980; 오성심·이종승, 1982),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덧붙이고 싶다.

참고 문헌

- 김영순(1986), 어머니의 육아 방식과 아동의 인지적 조망 수용능력간의 상관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애·조복희(1985),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4호.

- 심영현(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 방법과 자아 개념과의 상관관계,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십·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 노트, 서울; 행동과학 연구소.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숙(1984),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 pp.163~168.
- 이 숙(1985), "어머니의 직업 유무, 형제 구성 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수 논문집, 가정학편 제30집, pp. 23~39.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희자·정영숙(1979), "아버지의 양육 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7권 2호.
- 장하경(1985), "부와 모의 양육 태도 및 일치 여부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2호, pp.123~137.
- 전경숙(1980), "부모간의 양육 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1986), "한국 유치원 아동에 있어서 부모 양육 태도 및 가정환경 그리고 인지능력과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 춘계 심포지움.
-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내외계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상욱(1985),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4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 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mentrout, J.A. & G.K. Burger(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7, No. 1, pp.44~4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y*,
- Bem, Sandra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 2, 155-162.
- Bem, Sandra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No. 4, 634-643.
- Hoffman, M.L. (1960), "Power Assertion by the Parent and Its Impac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Vol. 31, p.139.
- Hoffman, M.L., and Saltzstein, H.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57.
- Kelly Jeffrey A. and Worell, Leonard (1976), "Parent behaviors related to masculine, feminine, and androgynous sex role orient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4, No. 5, pp.843~851.
- Kelly Jeffrey A. and Judith worell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s and Androgyn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5, No. 1101~1105.
- Maccoby, E.E. and Jacklin, C.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Vol. 1, pp.312~338.

Rohner, Ronald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Vol. 15, No. 1, pp.1~22.

Rohner, Ronald P. and Pettengill, Sandra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No. 2, pp.524~528.

Walters, J. and Stinnett, N. (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70~111.